

나주 옛 영산포 제일병원,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태어난다

응급의학과·외국인 진료센터 등 내년 상반기 개원...남부권 주민 등 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 내년 상반기 '공공형 종합 병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주시는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옛 영산포 제일병원 개 축 공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와 민선 8기 공약의 하나로 공공형 의료체 계 구축 사업을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이사장 김 미순)과 함께 추진해왔다.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해 이화동에 있는 옛 영산포 제일병원을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옛 영산포 제일병원은 지난 2019년 11월 폐업한 뒤 빈 건물로 방치돼왔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영산포, 남부권역 주민들 은 응급상황 때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 단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 었다.

이후 재단과 수차례 감담회를 열고 공공형 병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했다.

세화의료재단은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나주효사 랑병원·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두 기관은 오랜 협의 끝에 지난 10월 부지 계약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개축 공 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 (응급실)를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거듭난다.

이 병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외국 국적 동 포, 이주민 등을 위한 '외국인 진료센터'도 갖추 예

정이다.

나주시는 전남도로부터 다문화 진료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다국적 통역사를 갖춘 외국인 진료센터가 들어선다.

김인형 세화의료재단 상임이사는 "20여 년간 나 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재단이 공공 형 병원 설립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여있 던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린 응급진 료, 입원 가능한 공공형 병원이 내년 상반기 개원 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4년간 빈 건물로 방치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창동)이 나주시와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의 협업을 통해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새 단장해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나주시 제공)

장성군, CJ푸드빌 손잡고 '미식도시 장성' 홍보

특산물 활용 남도 음식 N서울타워 등서 소개...백종원 대표와 '5대 맛거리' 조성도 진행 중

장성 대표 특산물을 식재료로 쓴 남도음식이 대 기업 CJ푸드빌과 손잡고 전국에 홍보된다.

이는 장성군과 CJ푸드빌이 맺은 '상생 협약' 행 보의 하나로, '미식도시 장성' 도약에 한 발짝 나아 간다는 계획이다.

장성군은 지난 28일 서울 남산 엔(N)서울타워 전망대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CJ푸드빌과 '지역상생 협력 갈라디나'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갈라디나 행사에서는 장성 농특산물로 잘 차려진 저녁 성찬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김영록 전남도 지사,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 외식산업 관계 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 와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스위스 대사도 동 석했다.

장성군은 '월동(越冬) 겨울맞이'를 주제로 6가 지 코스 요리를 차렸다.

장성에서 난 사과, 토종 감, 복분자, 토란, 들깨, 버섯 등 40여 가지 식재료를 활용했다.

요리는 '사찰음식 명장' 백양사 천진암 정관스님이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채식 (비건) 음식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 다.

이번 행사는 장성군과 CJ푸드빌이 지난 5월 맺 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CJ푸드빌은 장성 식재료의 우수성 을 홍보한다. N서울타워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28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CJ푸드빌과 열린 행사에서 장성 농특산물로 만 든 '비건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CJ푸드빌 공식 소셜미디어(SNS)에서 장성 농특 산물을 만날 수 있다.

CJ푸드빌과 장성군은 사과, 새싹삼 등 농특산물 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도 힘쓴다.

앞서 CJ푸드빌은 닭갈국수에 장성 새싹삼을 활 용해왔다. 내년 초에는 장성 사과즙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지난 9월 외식 전문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맺기도 했다.

5대 맛거리 조성은 민선 8기 장성군 공약사업이

다.

장성군은 장성호 하류 미락단지를 포함해 권역별 5개 거리를 지정하고 장성만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 일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과 CJ푸드빌의 상생 프로젝트가 장성을 넘어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알 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백종원 대표의 ㈜더 본코리아가 업무협약과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등 다 양한 사업과 연계해 '미식도시 장성'으로 거듭나겠 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은 지난 28일 이상익 함평군수와 운영장 함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의료기관 등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관리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함평군 제공)

함평보건소에 감염병관리센터 개소

함평군은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감염병관리센 터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함평군 함평읍 보건소 부지에 들어선 감염병관 리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641㎡ 규모다.

군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기 존 선별진료소를 증축해 센터를 조성했다.

1층에는 음압 시설을 갖춘 검체 실과 검진실,

호흡기 진료를 위한 X-선실, 폐기물 보관실을 갖 치으며, 2~3층에는 사무실과 상환실, 다목적 교 육실이 들어섰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의 통합 관리와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다량 검사를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 다.

/함평=한수용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이 지난 28일 60~80대 어르신 25명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나의 소풍 이야기'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주인공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어르신들의 삶 '나의 소풍 이야기' 책으로

군, 출판기념회 열어

담양군이 60~80대 어르신 25명의 삶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나의 소풍 이야기'를 출간했다.

'나의 소풍 이야기' 출판기념회는 지난 28일 담양군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다.

어르신 인물 자서전 '나의 소풍 이야기'는 67 세부터 87세 어르신들의 소중한 추억을 엮었다.

담양군의 자서전 출판은 올해 여섯 번째를 맞 았다.

올해 자서전의 주인공은 모두 25명으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자서전의 주인공과 이병노 담양 군수, 담양군의회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어르신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어르신들 의 걸은 인생을 이야기했다.

자서전 제작에 참여한 노총남씨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라 며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을 걸어오며 서 배운 경험과 생각이 녹아있는 이 책 한 권이 누 군가에게 좋은 감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어르신 인물 자서전은 개 인의 삶이 아닌 군의 역사이고, 송고하게 보존할 가치 있는 자료"라며 "스물다섯 분의 인생이 담 긴 자서전이 일회성이 아닌 기록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이 아열대작목 바나나를 심는 까닭은

청년농 등 7농가에 유리온실 설치 등 지원...바나나 부산물 먹은 '바나나 한우' 육성도

화순군이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 해 유리온실 설치 등 농가 지원에 나선다.

화순군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해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일반농 3농가와 청년농 4농가 등 바나나 재배농가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농가는 3.25ha 규모의 바나나 유리온실을 조성중이다.

화순군이 바나나 재배를 집중 지원하는 이유는 매년 여름 날씨가 국지성 호우에 고온 다습한 아

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 최대 바나나 산지에 푸사리균 육식스포 림이라는 치명적인 곰팡이가 확산하면서 노지 재 배용 고품질 바나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는 것도 이유다.

한우 사육 농가와 연계해 바나나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 사용하는 등 바나나 한우를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바나나는 애플과 사과에 비해 식재 후 관리 인건비

가 적게 들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적합 한 점도 작용했다.

화순군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반영구적인 유리 온실을 설치하고 지역 적응성이 높은 바나나 재배 를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 바나나가 전국의 유기농 바나나 중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농가와 협력체계 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2028년 개관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 8개 체험 공간·26개 체험시설 구성

장흥군에 오는 2028년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연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남 국민안전체 험관' 건립 대상지를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으로 확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사는 지난 6월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공모에 참여한 13개 자치단체 가운데 안전체험관 유치에 성공했다.

공모 지원에 앞서 장흥군은 부지를 사전 매입하 고, 차별화된 지역 특화 사업안을 마련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장흥군은 국비 120억원, 도비 125억원 등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370억원을 확보했 다.

체험관은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지상 4층·지하 1 층 연면적 6000㎡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부터 설계와 시설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28년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처음 건립되는 대형 안전체험교육시설인 국 민안전체험관은 8개 체험 공간과 26개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안전 교육과 공연, 전시하는 종합 안전문화교육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연간 20만명 이상이 체험관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입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장흥군 측은 설명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해 10월 국정설명회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국회·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역 유치의 필요성 을 강조해왔다.

김 군수는 "장흥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전 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가 성공했다"며 "소방, 재 난, 산업 안전과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체험관 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팜' 30% 할인

12월 17일까지

화순군의 청정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소풍물 '화순팜'(hwasunfarm.com)이 오는 12월17일 까지 모든 상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화순팜, 팜팜 고객감사제'라는 이름으로 진행 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마련 된다.

모든 상품에 대해 30% 할인이율 적용되고, 신 규 가입 회원에게는 1000원 할인권을 준다.

'한 줄 팜'을 남기는 고객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 화순팜 상품을 준다.

상품에 대한 후기를 사진과 함께 남기는 10명

에게는 2만원 상당 상품을 경품으로 준다.

한편 화순군의 대표 특산물인 미니 파프리카는 다음 달부터 다시 화순팜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화순팜을 이용해 주신 회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할인 폭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화순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